

오펜시아 이야기

표지

중앙 상단

만화

히라도의 기리시탄

오펜시아

고행의 채찍

글 다나카 요시타카

그림 요네쿠라 유지

하단 좌측

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

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

최하단 좌측

발행 히라도시 문화교류과 2020년 2월

PAGE 1

No. 1

1565년. 취락에 있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기리시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.

NO. 3

찰씩!

이 채찍은 편태(discipline)라고 합니다.* 고행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

그리스도의 수난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저는 이것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.

NO. 4

※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(주여,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)라고 외우면서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고행을 수행한다.

주 x2

왼쪽: ※ 1565년 9월 23일자 페르난데스의 서한에서 발췌

오른쪽: *이 채찍은 훗날 일본어로 '오텐펜시아'라고 불리게 됩니다.

PAGE 2

No. 1

※ 일본인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채찍질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몸에서 나쁜 것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.

그리고 시간이 흘러...

No. 1 주

※ 1562년 10월 25일자 알메이다의 서한에서 발췌

No. 2

1614년, 에도 막부는 일본 전국에 그리스도교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. 외국인 선교사는 추방당했으며, 교회당은 파괴되었습니다.

No. 3

수많은 일본인 기리시탄들이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.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처형당했습니다.

No. 4

기리시탄 중 일부는 불교나 신도(神道)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'가쿠레 기리시탄(hidden Christians)'으로서 은밀히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.

PAGE 3

No. 1

일본에서 선교사가 사라지자, 고행을 위한 도구였던 채찍은 액막이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채찍은 그리스도교 금교령이 철폐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.

No. 2

2018년 7월, 나카에노시마 섬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.

No. 3

나카에노시마 섬은 가쿠레 기리시탄의 성지입니다. *가쿠레 기리시탄들은 수 세대에 걸쳐 오라쇼를 외우는 등의 의식을 통해 신앙을 계승해 나갔습니다.

No. 4

당초 신앙을 실천하는 도구로 알려진 채찍은 오텐펜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*일본에서는 지금도 오카케에나 오미즈빈 등 신앙 도구와 함께 오텐펜시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.

왼쪽 세로: *오텐펜시아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속죄를 의미하는 페니텐시아에서 유래했다.

아래 옆: *일본어로 오텐펜시아는 포르투갈어인 페니텐시아에서 변형된 것.

(No.3 에 새로운 주석이 필요함)

가쿠레 기리시탄은 금교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가톨릭으로 복귀하지 않고, 금교 중에 실천해 온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갔다.